

바다 따라 웃고 달렸다... 영종 물들인 '러닝 축제' 열기

전국 러너들 영종 해안길 질주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 축제 눈길
각 부문 경쟁 속 기록 열전
참가자들이 만든 특별한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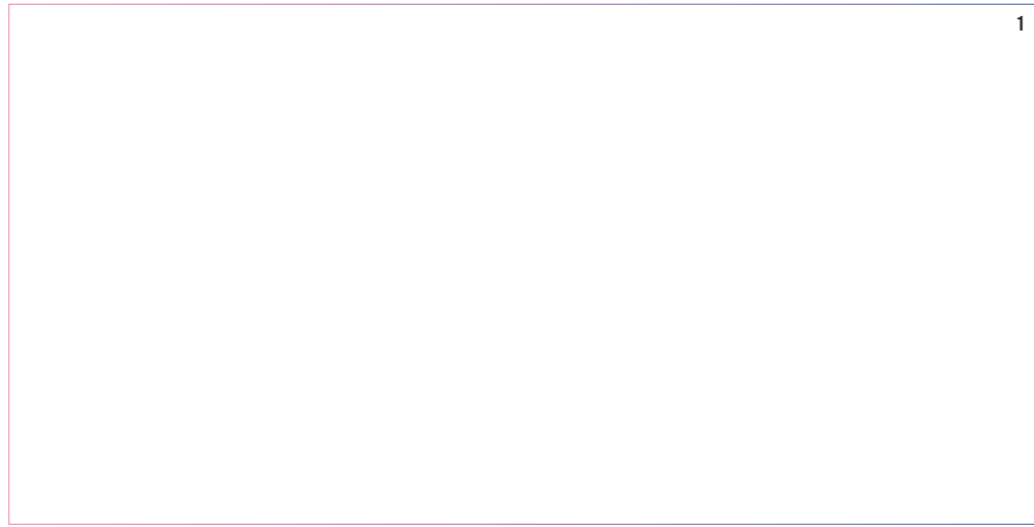
‘제1회 경기신문 씨사이드 마라톤대회’가 열린 16일 출발지인 인천 중구 영종 씨사이드파크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러너들로 장사진.

5km 참가자 이승진(28)씨는 “최근 연이은 비소식에 전날 저녁까지 비가 올까 걱정했는데 맑은 날씨라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려.

또 다른 참가자인 이주경(33·여)씨는 “친구 따라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제대로 뛰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반드시 완주해 친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웃음.

하늘구름광장 일대는 단채 티셔츠를 맞춰 입은 러닝크루와 동호회원들의 발길도 이어져.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찍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레이스를 준비. 일부 참가자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휴대



전화 카메라를 꺼내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한 동호회 회장은 “평소 한강 주위를 돌며 운동을 해왔던 동네 작은 모임으로 부터 시작했다”며 “건강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면서 규모가 커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해

출발 전 진행된 몸 풀기 시간에는 가족 동반 모임이 대거 출전해 눈길. 전문가사의 안내에 따라 어린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쉽게 목격돼. 이에 부모

들이 아이들의 장난기를 다그치느라 구슬땀.

중장년층 참가자들도 쉽게 눈에 띄어. 특히 이들은 전문가사의 몸짓에 맞춰 한 데 어우러져 장난스럽게 춤을 추며 행사 분위기를 더욱 활기치게 만들기도.

가족 참가자들이 많은 5km 코스에선 부모의 손을 잡고 달리는 어린이 참가자들이 쉽게 눈에 띄어. 이동우(9)군은 “놀러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경기장”이라며 울상.

경기가 끝난 뒤 잔디광장 한편에서 돛

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도 쉽게 볼 수 있어.

또 반환점 인근과 결승선 주변에서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의 응원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이에 지친 표정으로 달리던 참가자들도 다시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 역시 쉽게 목격돼.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행사장 곳곳에서 이어져. 운영본부와 급수대, 메달 배부처 등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 안내와 안전 관리, 음료 제공

등을 도우며 원활한 대회에 힘을 보태.

한 자원봉사자는 “평소 마라톤에 관심이 많아 자원봉사에 나서게 됐다”며 “모든 선수들이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광장 한편에선 레이스를 끝낸 뒤 메달을 목에 건 참가자들의 환호로 가득해. 이들은 기록증을 확인하거나 함께 달린 동료들과 사진을 찍으며 완주의 기쁨을 나누.

김이슬(29·여)씨는 “기록보다 분위기가 더 기억에 남는다”며 “경기신문 마라톤

대회에 다시 꼭 참석할 계획”이라고.

이우현 기자

102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사진=성은숙 기자

161 제1회 경기신문 씨사이드 마라톤 대회 하프(20km) 구간에 참가한 선수들이 출발선으로 가고 있다.

14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가 결승선으로 달려오고 있다.

161 마라톤 대회 참가 선수들이 출발 신호를 듣고 질주를 시작했다. 사진=이우현 기자



FOCUS 6·3 지방선거 D-16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대장동식 개발 망언 사죄하라”

유정복, 대장동식 개발 비판
수도권 현안 공조도 예고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대장동식 개발’ 관련 발언을 정면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 후보는 17일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의 현안을 풀겠다며 대장동 개발 방식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송, 이를 인천 개발에 적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앞으로도 생각이 변

할 일이 없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창의적인 대장동 사업이 성남 시민에게 수익을 얼마나 돌려주었는가, 특정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을 쟁기는 동안 시민은 무엇을 받았는가”라며 “대장동은 관련자들에게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항소심 등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건을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것은 피해를 호소한 성남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대장동식 개발을 인천에 적용하겠다는 망언을 지금까지도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유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대통령 명종 병이 지금 민주당에 창결

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범죄도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추미애와 박찬대 후보가 대장동을 옹호하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성남시민운동본부 양영수 상임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창의적 모델로 포장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와 양 후보는 수도권 교통·환경·문화 분야와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하민호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인확행 공약’ 4·5탄 발표

노인·아동 중심 정책 제시
디지털 소외부터 돌봄까지
문화 격차 줄이는 인천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노인·아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품격 인천’ 구상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7일 ‘인확행 공약’ 4·5탄을 공개하며 “인천의 뿌리인 어르신에게는 효도를,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현장 발권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예매와 모바일 인증 중심 운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정기적인 음료 배달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인 ‘그냥 해드립니다 센터’도 운영한다. 형광등 교체, 간단한 집수리, 키오스크 이용 안내 등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 시설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민주당 박찬대 후보.

박찬대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유정복 후보가 양향자 후보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정복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지역과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의료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노인의 빛이 되고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정책으로 품격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 학생 대상 ‘1인 1악기 교육’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하민호 기자